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공일자	2009. 07. 22.(수)
		담 당	제주발전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
	총 1페이지	연락처	726-7407

제 목 :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 정책보고서 발간 - 효율적 운영 방안 답아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유덕상)에서는 정책보고서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발간하였다.

- 제주여성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했던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자리에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이 기관은 2005년부터 건립 추진 협의가 있었으며, 2007년 12월에 착공하고,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여기에는 교육시설 외에 여성역사문화전시관,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를 잘 운영한다면 명실공이 제주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의 성격, 운영 주체, 운영 방안(프로그램 등) 등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므로 전국에 있는 종합문화센터와 유사한 기관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주도의 분야별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

-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 정책보고서는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 유지하되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성을 구별하지 말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담았다. 또한 교육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직업·기술 교육, 문화교육 등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요구했고, 전시관과 공연장은 특수한 분야라 전문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운영 방안으로는 자치단체 직영 후 민간위탁, 자치단체 직영, 민간위탁, 재단설립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BTL사업의 특성상 운영재원 마련이 중요하며, 제주여성들을 위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려면 운영 주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이 외에도 이 기관의 위상(조직)에 대한 의견도 수렴되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 보고서의 운영 방안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